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

임실군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기동 총 16대 확보

임실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군은, 10일 이도리 93번지 소재 옥수수 포장에서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 대행 작업단 발대식' 및 수확작업 시연회를 심민군수를 비롯해 대형 신청농가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그동안 농작업 대행 추진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리 전용 수확기 및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기인 자주식 베일러 등 8종 총 16대의 농기계를 확보했으며, 지난 6월 처

음으로 40개 농가 36ha의 보리 수확을 대행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0ha면적의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을 위해 2회의 농가 간담회를 비롯해 지역별 대표자를 선발, 수확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차파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오수면 용정리 이(55세)모씨는 "축산 농가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해야 하는데 수확 작업의 큰 어려움으로 면적을 늘리지 못했다"며, "군에서

수확 대행 작업단을 운영해 옥수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옥수수 엔시리지는 소에게 종합영양제와 같이 꾸준하게 먹이면 수태율이 높아지는 등 생산비를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며, "70ha 재배시 최소 연간 13억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옥수수 수확 작업의 불편함이 해소된 만큼 재배면적이 100ha까지 늘어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이 증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현안 문제 해결 정책조정회의 개최

북분자특구 활성화 방안 논의... 수요자 중심 마케팅 전략 등 제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 및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문을 구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는 김상호 고창군부군수와 군장대 황만길 교수, 우석대 황태규 교수, 전북연구원 김수은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책조정회의 안건은 2017년까지 연장된 고창 북분자특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창군과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열린 토론을 진행

했다.

이날 성장기를 지나며 다소 침체된 북분자 산업의 현재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성숙기로 접어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됐다.

특히 수요자 중심에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북분자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방향과 제 2의 전성기 프로젝트 필요, 산재한 북분자 관련 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를 만들어 추진동력을 배가시키는 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상호 고창군 부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 북분자 산업

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특히 "규제특례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국가예산 발굴의 연계방안 등 고창군 북분자산업의 제 2의 도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군정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현안사항, 민원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구를 열어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건강한 식생활 체험공간 10월 말에 운영

건강한 식단·생활습관 체험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광 등 즐길 수 있어

올해 10월말 순창군에 가면 장수어르신들이 많은 순창군의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공간이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순창군 인계면 건강장수연구소 특구 내 지상 2층에 연면적 200㎡규모의 식생활 실습관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공한 식생활 실습관은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 체험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관으로 총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군은 체험프

로그램 개발 등 운영준비에 본격 들어갔다.

1층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조리 실습실과 아이 테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순창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당노,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건강디저트 및 에피타이저를 직접 만들어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 디저트 클래스, 할당을 낮추는 당노 디저트, 부부 연인들을 위한 디저트 클래스,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건강요리 원데이

클래스 등을 구상 중이다. 각 클래스마다 편식예방 곡물쿠키, 고들빼기 현미떡, 블루베리 마카롱, 계절별 디저트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층은 디저트와 커피 등을 즐기며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군은 식생활 실습관이 본격 운영되면 노후준비 교육 등 건강장수 연구소를 찾는 교육생이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군이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 세계희귀동물 특별전 무료입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광복절 당일 면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방문객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전시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시관 관계자는 "광복절 기념 입장료면제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71주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폭염으로 지친 일상에서 탈피하여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관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운영 중인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살아있는 희귀동물과 희귀곤충표본에 눈을 떴지 못하고 사막여우, 미어캣, 스킨크, 알비노버미즈파이톤, 청금강앵무새 등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만끽하고 사슴벌레와 장수풍뎠이 유충 등을 만져볼 수 있는 딱정벌레 체험과 물속에 사는 물방개, 물뱀

뱀, 게아재비, 장구애비 등 다양한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수서곤충체험은 아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사진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희귀곤충표본은 실제 곤충으로 만든 작품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며 사람 손바닥보다 큰 달라타타가시대벌레, 가장 싸움을 잘하는 키톤장수풍뎠이, 꼬끼리똥을 먹고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미누스왕소똥구리, 새처럼 큰 날개를 가진 버드왕나비 등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자개 거울만들기, 토피어리만들기, 곤충 표본만들기 등은 산림청의 예산지원으로 받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은 8월 28일까지 운영되고 전시관입장권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남원시청 산림과 백두생태계 전화(063-620-751~7574) 전시관 홈페이지(www.eco-edu.or.kr)를 이용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우리꽃누름 전시회 개최

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는 '2016년 우리꽃누름 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안면 '심진강땀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우리말로 '꽃 누르미'라고 불리는 압화는 천연 소재인 꽃이나 풀, 나뭇잎 등을 눌러 말려서 만드는 것으로 최근에는 종합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압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기념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회 의장, 강병재 K-water 전북본부장, 신기현 전북예총회장, 송병섭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장 및 지역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병섭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심진강땀물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각종 체험을 통해 관광객이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미술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옥천인재속 사관학교 1차 합격

순창군 옥천인재속 사관반 학생들이 7명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사관학교 1차 시험에 합격해 사관학생 양성의 요람임을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2017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응시생 23명 중 육군사관학교 3명, 해군사관학교 3명, 간호사관학교 1명 등 총 7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면서 사관학교 경쟁률이 더욱 상승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처럼 옥천인재속 학생들이 사관학교에 합격비율이 높은 이유는 특화된 교육 환경에 비결이 있다. 군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사관반을 신설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사진과 학교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옥천인재속에서는 육사생도선발 과정 초형 입시설명회, 공군사관학교 견학, 사관학교 맞춤형 특강과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동기부여에서부터 입시요강, 맞춤형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